

# 아동학대경험과 분노표출이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Child Abuse Experience and Anger Expression on the Method of Resolving Interpersonal Conflicts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이 서 원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강 사 한 지 숙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ryocyber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Seo Won Lee

Division of Child Welfare and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Lecturer* : Ji Sook Han

###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anger ex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experience and the method of resolving interpersonal conflicts. For the study, 3,050 4th to 6th grade children from Kyunggi-do were sampl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imple regression, multi regression and a path analysis. This study showed that child abuse experience influenced the method of resolving the interpersonal conflicts via the expression of anger. In other words, anger expression could function as a pathway between child abuse experience and the method of resolving interpersonal conflicts.

**주제어(Key Words)** : 아동학대경험(child abuse experience), 분노표출(anger expression), 대인간 갈등해결방식(method of resolving interpersonal conflicts)

## I. 서론

아동은 자신을 둘러싼 인간관계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갈등해결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건강한 갈등해결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경우에는 보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다양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초등학교가 공격적 갈등해결방식을 행사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청소년폭력 예방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최초 폭력피해경험이 초등학교 이던 비율은 지난 2008년 56.1%에서 2010년 63%로 증가하였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9, 2011). 폭력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집단따돌림, 학교부적응도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이인옥, 강영하, 2007). 초등학교가 대인관계 갈등을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또래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일례로 2010년에는 친구들을 괴롭힌다고 나무라던 20대 여교사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구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따라서 아동의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해결방식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아동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아동의 갈등해결방식을 건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갈등해결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요인간 관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선행되고, 이를 근거로 실천개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수행된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갈등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아동의 환경적 요인과 개인내적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환경적 요인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아동의 갈등해결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관계(하지원, 2005), 부모행동 통제특성(이민영, 김광웅, 조유진, 2006), 양육태도(정미현, 2002; 정선영, 2001)와 같이 아동이 속한 가족요인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소수의 연구들에서는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김송이, 2006), 우정의 질(김표선, 2003)과 같이 아동의 친구요인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개인내적 요인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정서 조절능력(하지원, 2005), 정서표현의도(한혜원, 2002), 정서 지능(이민영 외, 2006)과 같이 아동의 정서적 요인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소수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정미현, 2002), 사회적 조망수용능력(박옥철, 2004)과 같은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과 개인내적 요인이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관계에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이민영 외, 2006).

Golman(1995)은 가정환경이 아동의 정서발달의 환경적 요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Salovey와 Mayer(1996)도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정서적 기술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할 때, 환경적 요인에 있어 다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족요인은 아동의 개인내적 요인인 정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임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아동의 갈등해결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환경적인 요인 중 아동이 속한 핵심적 집단으로서 가족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며, 가족요인 중 선행연구를 근거로 부모로부터의 학대받은 경험 즉, 아동학대 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아동학대는 부모와의 관계의 부정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 할 수 있는 바, 선행연구에서 부모에게 신체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아동들은 공격성을 표출하고, 타인과의 갈등상황에서 부적절하게 대처하고(최지경, 2006),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또래 상호작용과 대인간 문제해결 상황에서 보다 공격적이고 회피적인 방법을 사용하며(Hoffman & Twentyman, 1984) 대인문제 해결력이 부족하다(Kaufman & Cicchetti, 1989; Straus, 1991)고 보고하고 있다. 부모와의 관계가 학대적일 경우 아동은 건강한 갈등해결방식을 학습하지 못하여 자신과 가까운 대인관계에서도 공격적인 갈등해결방식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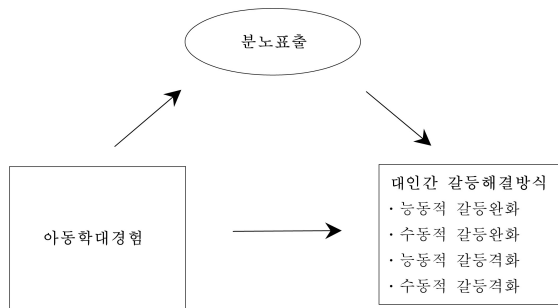
다음으로 아동의 갈등해결방식에 영향을 주는 개인내적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아동의 정서적 요인 중 대표적 부정적 정서에 해당하는 분노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노는 아동이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 가운데 아동학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 변인이라 할 수 있다. 학대받은 아동들은 높은 수준의 분노를 보이며 자신의 분노를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 학대를 받은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분노를 제대로 표출하거나 적절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난폭한 행동이나 언어로 표현하는 경향이 높고(이연복, 2000), 학대를 경험한 아동일수록 자신의 분노를 잘 통제하지 못하고 과도한 분노 표출을 한다(권효정, 2005). 또한 아동이 최초로 사회성을 형성하게 되는 가정에서 분노를 바르게 표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경우 이것이 그대로 답습되기 쉽고 분노관리 실패로 인해 정서·행동장애, 비행, 학교폭력, 가출, 약물 및 인터넷 중독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여(김광수, 2003)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성에 따라 갈등해결방식이 상이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아동의 성과 갈등상황에서 보이는 행동 관계를 검증한 국외연구에서도 남아와 여아의 갈등해결방식의 차이를 보고하고 있는데, 남자는 위협과 힘을, 여자는 갈등을 완화시키는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Murphy & Eisenberg, 1996; Shantz & Shantz, 1985).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갈등해결방식에 관하여 성에 따른 차이를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지 않다(정선영, 2001). 이에 성별에 따라 아동의 갈등해결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갈등해결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아동의 환경적 요인으로서 아동학대경험 및 개인내적 요인으로서 분노표출이 아동의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특히 분노표출의 매개변인을 통해 아동학대가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직·간접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분노표출의 중요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나아가 아동이 갈등 및 분노를 좀 더 바람직하고 올바르게 표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아동학대경험이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2) 분노표출이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3) 아동학대경험이 분노표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4) 아동학대경험이 분노표출을 통해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직·간접 경로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내 초등학교 4, 5,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약 3,0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경기도내 27개 시·군에 위치한 29개 초등학교에서 각 학교당 4, 5, 6학년 아동 약 100여명을 임의표집하여 질문지를 통해 아동학대, 분노표출, 대인간갈등해결방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을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선정한 이유는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응답하기에 초등학교 저학년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보건

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0)에 따르면, 초등학교 4, 5, 6학년에 해당하는 만 10세에서 만 12세까지의 아동이 가장 많이 학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본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남아가 48.8%, 여아가 51.2%였고, 학년별로는 4학년 30.7%, 5학년 37.0%, 6학년 32.3%의 분포를 보였다. 가족유형의 경우에는 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 84.7%, 모부자가정 9.7%, 재혼가정 2.0%, 조손가정 1.3%, 기타 2.3%를 나타냈고 아동들이 느끼는 주관적 생활수준은 보통이 60.3%로 가장 많았으며, 잘사는 편이 30.2%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관련변인을 측정하였다.

#### 1) 아동학대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를 측정하기 위해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 등 총 31문항을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우선 신체학대 척도는 Straus가 제작한 갈등해결척도(CTS) 중 폭력척도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한 한국이웃사랑회 아동학대문제연구소(2000)의 질문지를 한경은(2005)이 일부 수정한 7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구성은 '가벼운 신체학대', '중간 정도의 신체학대', '심각한 신체학대'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정서학대 측정을 위해 신영화(1986)와 고성혜(1992)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최은희(2001)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정서학대는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별이나 편애에 관한 문항', '모욕적이고 거부적인 행동에 관한 문항', '언어적 학대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임척도는 황영희(1987)의 척도와 고성혜(1992)가 제작한 척도를 수정·보완한 한경은(200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방임은 총 12문항이며, '안전관리소홀', '건강관리소홀', '비행방조', '정서적 무관심' 등 네 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성학대는 Finkelhor(1979)가 제작하고 김민정(1997)에 의해 번안, 수정·보완된 Childhood Sexual Experiences(CES)를 참고로 3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한번도 없었다' 1점, '1년에 1~2번' 2점, '1달에 1~2번' 3점, '1주에 1~2번' 4점, '거의 매일' 5점까지 중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를 더 많이 받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 Chronbach  $\alpha$ 는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분노표출 척도

본 연구에서는 Spilberger, Jacobs, Russell과 Crane (1983)이 제작하고 김백영(1997)이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수

정한 ‘분노표현검사’ 총 24문항 중 분노표출에 해당하는 8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가끔 그렇다’ 2점, ‘자주 그렇다’ 3점, ‘항상 그렇다’ 4점까지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를 자주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80으로 나타났다.

### 3) 대인간 갈등해결방식 척도

갈등해결방식이란 ‘개인이 갈등상황에서 가장 유력하게 나타내는 반응’(Booth, 1982)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의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Sternberg와 Dobson(1987)이 제시한 12개의 갈등해결방식을 정경남(2003)이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수정한 것을 활용하였다. 갈등해결방식은 크게 ‘능동적 갈등완화’, ‘수동적 갈등완화’, ‘능동적 갈등격화’, ‘수동적 갈등격화’ 등 4개의 하위척도로 구분되어지며,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은 10점 평정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갈등해결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능동적 갈등완화는 대화나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태도이며, 수동적 갈등완화는 갈등이 생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갈등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며, 순종 또는 참는 태도로 갈등을 피하거나 줄이려는 태도를 말한다. 또한 능동적인 갈등격화는 갈등상대를 비난하거나 상대방을 헐뜯어 말다툼하는 행동으로 규정되며, 수동적 갈등격화는 갈등시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갈등을 해결하거나 상대방이 이전에 이같은 갈등을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참고로 해서 해결하는 방식이다. 대인간 갈등해결에 있어서 갈등격화보다는 갈등완화가, 수동적 갈등완화보다는 능동적 갈등완화가 자신의 욕구도 충족시키면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 볼 수 있다.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능동적 갈등완화 .81, 수동적 갈등완화 .74, 능동적 갈등격화 .81 수동적 갈등격화 .63으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0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였으며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경기도내 8개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사례관리 관할 지역내에 있는 각 시·군의 초등학교를 사전에 방문하여 본 연구의 취지에 대해 설명·협조를 구하였으며 이에 동의한 학교에 배포하여 수거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alpha$ 를 산출하였다. 종속변인인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고 변인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의 아동학대경험과 분노표출이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문제 3의 아동학대경험이 분노표출에 미치는 영향 역시 단순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4에서 설정한 아동학대경험을 예측변인으로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을 준거변인, 분노표출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본 연구는 우선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이 남아, 여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자 *t*-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변인인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의 하위변수인 능동적 갈등완화, 수동적 갈등완화, 능동적 갈등격화, 수동적 갈등격화에 있어서 남, 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에 의하면, 여아가 남아보다 능동적 갈등완화( $t = -7.72, p < .001$ ), 수동적 갈등완화( $t = -2.01, p < .05$ ), 수동적 갈등격화방식( $t = -2.54, p < .05$ )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능동적 갈등격화방식( $t = 3.68, p < .001$ )에 대해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아동학대경험이 대인간 갈등해결방식과 분노표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아동학대경험과 분노표출을 통해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직, 간접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주요 변인인 아동

<표 1> 성별에 따른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의 차이

변수	N	M	SD	t
능동적 갈등완화	남아 1441 여아 1533	3.31 3.91	2.18 2.13	-7.72***
수동적 갈등완화	남아 1446 여아 1537	3.57 3.71	1.94 1.78	-2.01*
능동적 갈등격화	남아 1446 여아 1537	2.05 1.86	1.46 1.39	3.68***
수동적 갈등격화	남아 1441 여아 1534	2.09 2.24	1.60 1.58	-2.54*

\* $p < .05$ , \*\*\* $p < .001$

〈표 2〉 아동학대경험, 분노표출, 대인간 갈등해결방식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1. 학대경험		.41***	.00	.12***	.33***	.25***
2. 분노표출	.45***		.01	.14***	.45***	.35***
3. 능동적 갈등완화	-.02	-.02		.55***	.23***	.32***
4. 수동적 갈등완화	.14***	.21***	.46***		.42***	.46***
5. 능동적 갈등격화	.28***	.47***	.13***	.37***		.67***
6. 수동적 갈등격화	.23***	.37***	.23***	.47***	.67	

주. 위 : 남아(n = 1466), 딸 : 여아(n = 1541)

\*\*\*p < .001

학대경험, 분노표출, 대인간 갈등해결방식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를 보면, 전체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녀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남아의 경우 아동학대경험과 분노표출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r = .41, p < .001$ ),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의 하위척도 중에서는 능동적 갈등완화를 제외한 수동적 갈등완화( $r = .12, p < .001$ ), 능동적 갈등격화( $r = .33, p < .001$ ), 수동적 갈등격화( $r = .25, p < .001$ )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학대를 더 자주 받을수록 분노표출을 더 많이 보이고 대화나 타협을 통한 능동적 갈등완화보다는 비난, 말다툼,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한 능동적 또는 수동적 갈등격화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표출 역시 능동적 갈등완화를 제외한 수동적 갈등완화( $r = .14, p < .001$ ), 능동적 갈등격화( $r = .45, p < .001$ ), 수동적 갈등격화( $r = .35, p < .001$ )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어 분노표출이 많을수록 능동적 또는 수동적 갈등격화방식을 사용하여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동학대경험이 분노표출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r = .45, p < .001$ ), 능동적 갈등완화를 제외한 수동적 갈등완화( $r = .14, p < .001$ ), 능동적 갈등격화( $r = .28, p < .001$ ), 수동적 갈등격화( $r = .23, p < .001$ )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학대를 자주 받은 아동일수록 분노표출을 더 많이 보이고 갈등완화방식보다는 갈등격화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 분노표출과 대인간 갈등해결방식간의 관계도 능동적 갈등완화를 제외한 수동적 갈등완화( $r = .21, p < .001$ ), 능동적 갈등격화( $r = .47, p < .001$ ), 수동적 갈등격화( $r = .37, p < .001$ )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분노표출이 많은 아동일수록 능동적 또는 수동적 갈등격화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아동학대경험이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영향

준거변인	b	β	t	r <sup>2</sup>	F	
남아	능동적 갈등완화	.00	.00	.03	.00	.00
	수동적 갈등완화	.65	.12	4.54***	.01	20.61***
	능동적 갈등격화	1.38	.33	13.36***	.11	178.40***
	수동적 갈등격화	1.14	.25	9.86***	.06	97.22***
여아	능동적 갈등완화	-.13	-.02	-.66	.00	.43
	수동적 갈등완화	.91	.14	5.58***	.02	31.11***
	능동적 갈등격화	1.38	.28	11.26***	.08	126.71***
	수동적 갈등격화	1.34	.23	9.45***	.06	89.24***

\*\*\*p < .001

### 1. 아동학대경험이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의 아동학대경험이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학대경험을 예측변인으로,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아의 경우 아동학대경험이 수동적 갈등완화( $\beta = .12, p < .001$ ), 능동적 갈등격화( $\beta = .33, p < .001$ ), 수동적 갈등격화( $\beta = .25, p < .00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도 아동학대경험이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의 하위변인 중에서 수동적 갈등완화( $\beta = .14, p < .001$ ), 능동적 갈등격화( $\beta = .28, p < .001$ ), 수동적 갈등격화( $\beta = .23, p < .00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능동적 갈등완화를 제외하고는 아동학대경험이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의 주요한 예측변인임을 반영하는 것이며 즉 학대를 더 자주 받은 아동일수록 대인간 갈등에서 능동적 또는 수동적 갈등격화방식을, 그리고 수동적 갈등완화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능동적 갈등격화를 예측해주는 아동학대경험의 전체설명력이 남아 11%, 여아 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2. 분노표출이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의 분노표출이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를 보면, 우선 남아의 경우 분노표출이 수동적 갈등완화( $\beta = .14, p < .001$ ), 능동적 갈등격화( $\beta = .45, p < .001$ ), 수동적 갈등격화( $\beta = .35, p < .00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아의 경우에도 수동적 갈등완화( $\beta = .21, p < .001$ ), 능동적 갈등격화( $\beta = .48, p < .001$ ), 수



〈표 4〉 분노표출이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영향

준거변인	b	β	t	r <sup>2</sup>	F	
남아	능동적 갈등완화	.02	.01	.22	.00	.05
	수동적 갈등완화	.49	.14	5.28***	.02	27.87***
	능동적 갈등격화	1.21	.45	18.95***	.20	359.00***
	수동적 갈등격화	1.04	.35	14.18***	.12	201.01***
여아	능동적 갈등완화	-.06	-.02	-.64	.00	.42
	수동적 갈등완화	.70	.21	8.37***	.04	70.09***
	능동적 갈등격화	1.24	.48	21.14***	.23	446.90***
	수동적 갈등격화	1.11	.37	15.78***	.14	248.91***

\*\*\*p < .001

동적 갈등격화(β = .37,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 녀 모두 분노표출이 대인간 갈등해결방식 중 능동적 갈등완화를 제외한 수동적 갈등완화, 능동적 갈등격화, 수동적 갈등격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인간 갈등해결방식 중 능동적 갈등격화를 예측해주는 분노표출의 전체 설명력이 남아 20%, 여아 23%로 가장 높았다.

3. 아동학대경험이 분노표출에 미치는 영향

다음은 연구문제 3의 아동학대경험이 분노표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이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학대경험은 남아의 분노표출(β = .41, p < .001), 여아의 분노표출(β = .45,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대를 더 많이 받은 아동일수록 분노표출이 더 많았다. 또한 분노표출을 설명해주는 예측변인인 아동학대경험의 전체 설명력은 남아 17%, 여아 20%로 여아가 남아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 아동학대경험이 분노표출에 미치는 영향

준거변인	예측변인	b	β	t	r <sup>2</sup>	F
분노표출	남	.64	.41	17.33***	.17	300.44***
	여	.86	.45	19.70***	.20	388.13***

\*\*\*p < .001

4. 아동학대경험과 분노표출이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을 준거변인으로 아동학대경험과 분노표출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학대경험과 분노표출은 능동적 갈등완화를 제외한 수동적 갈등완화, 능동적 그리고 수동적 갈등격화방식을 설명하는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아동학대경험보다 분노표출이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대해 설명력이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경험과 분노표출 변인의 능동적 갈등격화에 대한 전체 설명력이 남, 녀 모두 23%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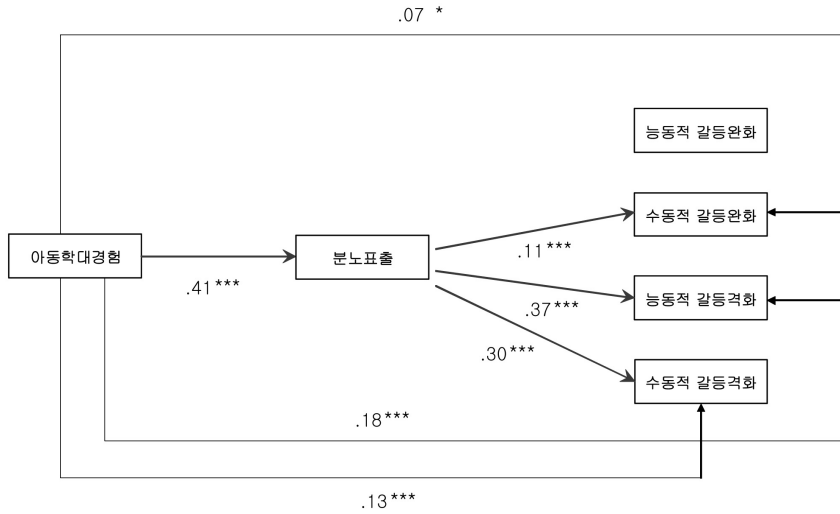
5. 아동학대경험, 분노표출, 대인간 갈등해결방식간의 경로 탐색

〈표 6〉의 결과에서 제시한 β 값과 〈표 5〉의 β 값을 바탕으로 경로모형을 제시하면 아래 〈그림 2〉, 〈그림 3〉과 같다. 남아의 아동학대경험이 분노표출을 통해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경로를 살펴본 결과, 우선 능동적 갈등완화에 대해서는 아동학대경험과 분노표출의 직접적, 간접적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아동학대 경험은 수동적 갈등완화(β = .07, p < .01), 능동적 갈등격화(β = .18, p < .001), 수동적 갈등격화(β = .13, p < .001) 등의 갈등해결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분노표출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β = .41,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표출 역시 수동적 갈등완화, (β = .11, p < .001) 능동적 갈등격화(β = .37, p < .001), 수동적 갈등격화(β = .30, p < .001)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아의 경우에도 남아와 마찬가지로 능동적 갈등완화에 대해서는 아동학대경험과 분노표출의 직접적, 간접적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아동학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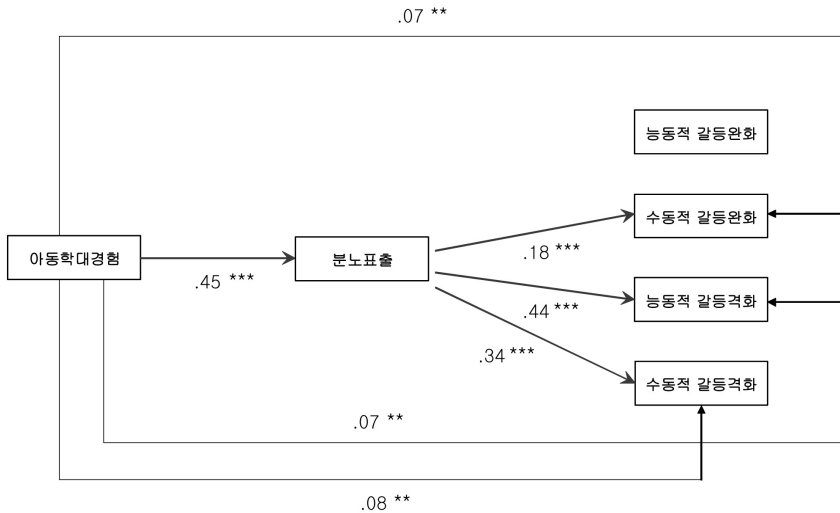
〈표 6〉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대한 아동학대경험, 분노표출의 중다회귀분석

변인	능동적 갈등완화		수동적 갈등완화		능동적 갈등격화		수동적 갈등격화	
	β		β		β		β	
	남아	여아	남아	여아	남아	여아	남아	여아
학대경험	-.00	-.01	.07	.07	.18	.07	.13	.08
분노표출	.00	-.01	.11	.18	.37	.44	.30	.34
R <sup>2</sup>	.00	.00	.02	.05	.23	.23	.14	.14
F	.03	.30	17.38***	37.86***	209.72***	228.42***	113.47***	129.35***

\*\*\*p < .001



〈그림 2〉 남아의 아동학대경험, 분노표출,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의 경로모형



〈그림 3〉 여아의 아동학대경험, 분노표출,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의 경로모형

험은 수동적 갈등완화( $\beta = .07, p < .05$ ), 능동적 갈등격화( $\beta = .07, p < .01$ ), 수동적 갈등격화( $\beta = .08, p < .01$ )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분노표출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 $\beta = .45, p < .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표출도 수동적 갈등완화( $\beta = .18, p < .001$ ), 능동적 갈등격화( $\beta = .44, p < .01$ ), 수동적 갈등격화( $\beta = .34, p < .001$ )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아동학대경험은 남아, 여아의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분노표출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능동적 갈등격화방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의 〈표 7〉은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한 결과이다. 〈표 7〉을 보면, 남아의 경우 수동적 갈등완화에 대해 아동학대경험이 .07의 직접효과와 .04의 간접효과를 보이고 전체효과는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능동적 갈등격화에 대해서는 아동학대경험이 .18의 직접효과와 .15의 간접효과, .33의 전체효과를 보였고 분노표출에 의한 45%의 간접효과 비율을 보였다. 수동적 갈등격화에 있어서는 직접효과가 .13, 간접효과는 .12, 전체효과는 .25를 보였으며 분노표출에 의한 48%의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여아의 경우에는 수동적 갈등완화에 대해 아동학대경험이 .07의 직접효과와 .08의 간접효과를 나타냈으며, 전체효과 .15를 나타냈다. 또한 아동학대경험이 능동적 갈등격화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7, 간접효과는

〈표 7〉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의 총 효과분해

종속변인	독립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분노표출		총 효과	
		남아	여아	남아	여아	남아	여아
능동적 갈등완화	학대경험 분노표출	-	-	-	-	-	-
		-	-	-	-	-	-
수동적 갈등완화	학대경험 분노표출	.07	.07	.04(36%)	.08(53%)	.11	.15
		.11	.18	-	-	.11	.18
능동적 갈등격화	학대경험 분노표출	.18	.07	.15(45%)	.19(73%)	.33	.26
		.37	.44	-	-	.37	.44
수동적 갈등격화	학대경험 분노표출	.13	.08	.12(48%)	.15(65%)	.25	.23
		.30	.34	-	-	.30	.34

주. ( )는 총 효과에서 간접효과의 비율을 나타냄.

.19이었으며, 분노표출에 의한 간접효과 비율이 73%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동적 갈등격화에 대해서는 아동학대경험이 .08의 직접효과와 .15의 간접효과, .23의 전체효과를 보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남아의 갈등해결방식에 관해서는 아동학대경험의 직접적인 영향이 좀 더 우세하고 여아의 경우에는 아동학대경험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분노표출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학대경험과 분노표출을 대인간 갈등해결방식과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학대경험과 대인간 갈등해결방식과의 관계가 분노표출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아, 여아의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남아의 경우에는 대인간 갈등시 말다툼, 위협 등의 능동적 갈등격화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아의 경우에는 남아보다 타협, 대화 등을 이용한 갈등완화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갈등에 반응하는 방식이 성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선행연구(김송이, 박경자, 2001)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둘째, 남아, 여아 모두 아동학대경험이 많을수록 대인간 갈등시 바람직하지 못한 해결방식인 능동적 또는 수동적 갈등격화방식을 취하였으며, 능동적 갈등완화가 아닌 수동적 갈등완화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학대경험이 많은 아동들은 대인간 갈등에서 대화나 타협 등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다툼이나 폭력 등 분쟁이 격화되는 양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들

은 대인문제 해결력이 부족하다는 선행연구(하정희, 1993; Kaufman & Cicchetti, 1989)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학대를 받은 아동들의 이러한 갈등해결의 경향은 향후 또래 또는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집단따돌림, 학교부적응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대경험 아동들을 대상으로 좀 더 긍정적이고 원만한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분노표출이 아동의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분노표출은 갈등해결방식 중에서도 능동적 갈등격화를 가장 높게 예측해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역기능적인 분노표출 행동이 많을수록 대인간 갈등시 다툼, 비난 등의 격화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분노라는 정서와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을 취하는 개인의 인지행동패턴간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으로 아동의 정서성이 아동이 사회적 정보를 처리하고 갈등적 상황에서 행동을 결정하는데 관계될 수 있음을 시사한 연구결과(Lemerise & Arsenio, 2000; Murphy & Eisenberg, 1997)와도 같은 맥락이며 갈등해결에 있어 분노표출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통제되지 않은 분노의 과도한 표출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시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이규미, 1999) 적응상의 문제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선행연구(권효정, 2005)는 밝히고 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표현되어야 하는 분노가 조절과 수정이 가능한 기본 정서라는 점과 초등학교 시기가 아직 분노표출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노표출 방법 등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아동학대경험은 분노표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분노표출



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학대경험이 분노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임을 확인한 또 다른 선행연구결과(오진환, 2002)와도 일치한다. 특히 분노가 모방을 통해 학습되고 부모는 아이들에게 중요한 모델이 되는(Kassinove & Suchodolsky, 1995)만큼 부모가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학대행동으로 표출할 때 아동 역시 다른 사람에 대해 자신의 부모와 같은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섯째, 아동학대경험은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분노표출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대한 분노표출 변인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즉 대인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분노를 적절하게 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다툼이나 비난 등의 격화된 방식을 덜 사용할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로 인해 자신의 분노를 잘 통제하지 못하고 과도한 분노표출을 할 가능성이 높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분노표출 프로그램을 통해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남아의 경우 아동학대경험의 직접적인 효과가 분노표출에 의한 간접적인 효과보다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아의 경우에는 분노표출에 의한 간접효과가 아동학대경험보다 더 큰 것으로 밝혀져 분노표출의 영향이 여아에게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남아보다 여아에 대해 분노표출 프로그램 개입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학대경험과 분노표출의 직, 간접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아동학대경험이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보다는 분노표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는 것을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갈등해결에 대한 분노표출의 간접적 영향을 확인한 것은 이와 관련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적, 상담적 개입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지역의 일부 초등학교 4, 5, 6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아동에게 일반화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선표집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초등학교 고학년에 국한되어 있어 연령 또는 발달단계에 따른 차이 등은 살펴볼지 못했는 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함께 조사함으로써 비교연구가 가능하리라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인간 갈등해결방식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함께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관계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아동학대경험과 대인간 갈

등해결방식과의 관계에서 분노표출의 영향에 대해 파악한 것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학대받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분노표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이에 관한 효과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고성혜(1992). 아동학대 개념 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자녀의 지각 성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권효정(2005). 아동이 지각한 학대경험과 자기조절능력 및 분노표현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광수(2003). 청소년의 분노수준, 분노대처방식과 학교생활 적응. **교육심리연구**, 17(3), 393-410.  
 김민정(1997). 여대생의 아동기 성학대 피해경험과 심리사회적 손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백영(1997). 분노통제 프로그램이 부적응 아동의 분노와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승이(2006). 학령기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방식 및 종결방식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7(4), 265-278.  
 김승이, 박경자(2001). 또래 지위와 친구관계에 따른 아동의 갈등해결방식. **아동학회지**, 22(4), 69-84.  
 김표선(2003). 아동의 또래지위와 우정의 질 및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옥철(2004). 초등학교의 사회적 조망수용능력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 관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0). 2009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신영화(1986). 한국 아동학대의 사회·인구 및 가족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진환(2002). 아동기 피해대경험이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규미(1999). 청소년의 분노와 분노처리과정에서의 공격행동에 관한 체험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민영, 김광웅, 조유진(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행동특성 특성과 정서지능 및 친구간 갈등해결전략. **아동학회지**, 27(6), 149-165.  
 이연복(2000). 성장기 가정폭력의 목격경험이 가정폭력의 허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인옥, 강영하(2007). 갈등해결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갈등해결방식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발달장애연구**, 11(2), 141-159.

정경남(2003). 초등학교 아동의 대인간 갈등해결방식 향상을 위한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미현(2002).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친구 간 갈등해결 전략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선영(2001).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9). **2008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1). **2010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최은희(2001). 부모의 아동학대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지경(2006). 학대받은 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기능과 정서 조절의 비교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정희(1993). 학대적 가정환경과 아동의 대인문제해결력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지원(2005).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 및 정서조절능력이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정은(2005). 아동의 학대경험과 자아탄력성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수준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이웃사랑회 아동학대문제연구소(2000). **가정내 위기와 아동학대**. 서울: 한국이웃사랑회 출판부.

한혜원(2002). 아동의 정서표현 의도와 친구 간 갈등해결 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영희(1987).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아동학대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ooth, R. R.(1982). Conflict Resolution. *Nursing Outlook*, 30, 447-453.

Finkelhor, D.(1979). *Sexually Victimized Children*. New York: Free Press.

Golman, D.(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Hoffman, P. D., & Twentyman, C. T.(1984). A multimodel assessment of behavioral and cognitive deficits in abuse and neglected preschoolers. *Child Development*, 55, 794-802.

Kassinove, H., & Suchodolsky, D. G.(1995). Anger disorder: basic science and practice issues. In H. Kassinove (Ed). *Anger disorder definition, diagnosis, and treatment*. Taylor & Francis.

Kaufman, J., & Cicchetti, D.(1989). Effects of maltreatment on school age children's sociomotional development ; Assessment in a day? camp set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5, 516-524.

Lemerise, P. J., & Arsenio, W. F.(2000). An Integrated model of emotion processes and cognition i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Child Development*, 71(1), 107-118.

Murphy, B. C., & Eisenberg, N.(1996). Provoked by a peer : Children's anger-related respons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functioning. *Merrill-Palmer Quarterly*, 42, 103-124.

Murphy, B. C., & Eisenberg, N.(1997). Young children's emotionality, regulation, and social functioning and their responses when they are target of a peer's anger. *Social Development*, 6(1), 18-36.

Salovey, P., & Mayer, J. D.(1996).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Salovey, P., & Sluyter, D.(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mplications for Educators*. New York: Basic Books.

Shantz, C. U., & Shantz, D. W.(1985). Conflict between children: Social-cognitive and sociometric correlates. In M. W. Berkowitz(Ed.), *Peer conflict and psychological growth :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pp. 3-21). SF: Jossey-Bass.

Spilberger, C. D., Jacobs, G. A., Russell, S., & Crane, R. S.(1983). Assessment of anger : The State-Trait Anger Scale.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1(2), 159-187.

Sternberg, R. J., & Dobson, M. D.(1987). Resolving international conflict: Analysis of stylistic consist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5), 794-812.

Straus, M. A.(1991). Verbal aggression by parents and psychosocial problem of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15, 223-238.

접 수 일 : 2011년 2월 28일  
 심사시작일 : 2011년 3월 7일  
 게재확정일 : 2011년 4월 27일